

특특뉴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1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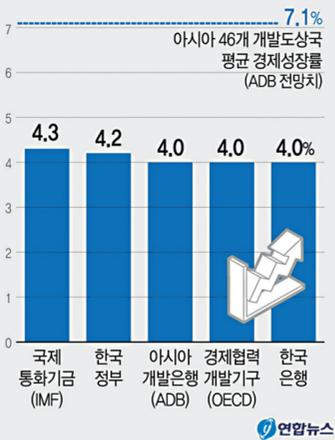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와 관리·감독한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그래픽 경제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4%대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가운데서도 한국은 올렸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2%로 끌어올렸다.

OECD는 최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이 올해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8%보다 0.2%포인트 높인 수치다.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서민들 부담 가중

정부,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 폭염 여파 농축수산물도 올라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료 인상이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이어온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최근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경영악화를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그만큼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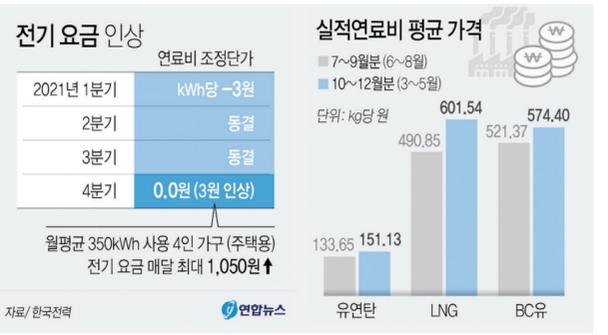
문제는 올해 소비자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품목별로 봐도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등이 일제히 올랐다. 소비자들의 가격 체감이 큰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7.8% 올랐고, 특히 수요가 높은 달걀은 가격이 54.6% 뛰어올라 올해 1월(15.2%)부터 8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공요금도 들쭉거릴 수 있다. 이번 인상이 당장 다음달부터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역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던 입장이었으나, 현실점에서 2%대 상승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말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상향 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와 아시아개발은행(ADB) (2.0%)도 2%

대 상승률을 예측한 바 있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2.2%) 이후 9년 만에 2%대로 올라서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은행이 신차 '캐스퍼' 쏜다

창립 53주년 기념 이벤트 금융상품 가입 시 자동 응모

광주은행이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신차 '캐스퍼'를 경품으로 쏜다. 광주은행은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15일까지 '볼수록 매력있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는 광주형일자리 모델로 탄생한 신차 '캐스퍼'가 1등 당첨 경품으로 내걸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이나 외출, 여행 등이 자유롭지 못해 이른바 '집콕', '방콕' 생활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일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쿠팡이츠 상품권 및 wavve(웨이브) 이용권 등 생활밀접쿠폰을 경품



광주은행이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신차 '캐스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제공

으로 준비했다. '볼수록 매력있어' 이벤트는 영업점 방문이나 스마트폰뱅킹(APP), 모바일웹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신용카드, 예·적금, 대출, 외화에·적금, 펀드, ISA 등 총 14종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11월 29일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당첨자 중 금액당 1명에게는 GGM의 '캐스퍼', 은메달 2명에게는 김치냉장고, 동메달 선착순 2만명에게는 쿠팡이츠 1만원권, wavve(웨이브) 베이직 이용권, 적금통장 중 1개를 제공한다. /서미애 기자

중기청 '수출 두드림 기업' 모집

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 내달 1일까지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정장장대교, 이하 지방중기청)은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두드림(Do-Dream)기업'을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수출규모가 작으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표로, 기존 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같이 소상공인에 특화된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수출 두드림 기업'에 신청하면 중진공, 소진공, KOTRA가 ▲제품 차별성 등 수출 기반 ▲마케팅 역량 등 수출 성공 가능성 ▲신서비스 개발 등 지속성장성 ▲매출, 수출 등 수출공통역량 등을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이후 각 지방중기청에서 지역별로 수출 두드림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 두드림 기업'에 선정되면 중기부가 자금·보조, 마케팅, 컨설팅 및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소진공은 혁신형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연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상담·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KOTRA) 및 중진공의 수출바우처에 우선 선정한다.

또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컨설팅과 무역전문가와의 1대1 수출멘토링도 제공한다. 특히 B2B 온라인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에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고, 해외 온라인몰(아마존, 라쿠파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접수는 내달 1일까지 가능하다.

수출 두드림기업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카페

객실

에식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